



# 교육개방에 따른 대학의 대처방안\*

이현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I. 서언

21세기는 국제협력이 증대되고 다국간 다인종간 인간협력시대가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산업과 교역의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WTO협상에 따라 교육서비스 개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세계 학교교육(global schooling)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교육이동의 세기(century of educational mobility)’라고 지칭 될 수 있다.

특히 국제화와 교육개방의 문제는 단일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범세계적 경향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 낙후되지 않고 국가 목표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생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과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와 교육개방의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측면과 이

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행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다.

특히 교육개방의 시대를 맞은 우리는 세계적 교육의 전이현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체제의 개방 그리고 교육구성원들의 이동을 예견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개방은 ‘교육적 동화’와 ‘문화적 접변’의 이중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WTO에 따른 교육개방의 과제도 많고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과 관련된 과제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방이 단순한 ‘제도적 개방’이 아니라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와 연관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방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장의 수요와 공

\* 이 글은 국제교류처(실)장 실무과정 연수자료를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

개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방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학의 다원화, 다양화, 다국화 그리고 국제화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고 세계의 교육시장을 상대로 질적 경쟁을 해야만 하는 21세기 국제경쟁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급 면에서 향후 10년을 추정해 볼 때 예견되는 고등교육인구의 변화라든지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사교육비의 의존도 그리고 한국교육의 사회·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개방의 의미와 대비책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개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방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개방이 주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향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체제의 변화와 과정 및 구성요인의 변화와 연관이 있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의 다원화, 다양화, 다국화 그리고 국제화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고 세계의 교육시장을 상대로 질적 경쟁을 해야만 하는 21세기 국제경쟁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대학들은 학생부족이 심각할뿐더러 교육산업(educational industry)적 시스템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면을 부인할 수 없고 ‘학생소비자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학사운영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II . 국제화와 교육개방의 전제

교육개방은 사회문화적 국제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의식적 국제화’라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자국화와 국제화의 두 의미를 전제로 개방의 과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국제화는 거시사회화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는 세계화 또는 지구화를 의미한다. 즉,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조직 또는 모든 국가가 개인적, 조직적,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 거래를 통해 세계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형태와 경험의 유형을 발전시켜 가는 총체적 과정이 국제화라고 광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개방의 의미는 세계를 장(場)으로 하는 사회문화의 국제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적인 입장에서 사회문화적 국제화 내지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적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제화는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가

치 체계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변화에 객관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 경쟁하려는 의지,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집념,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자세는 곧 국제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터득해야 할 가치이다. 둘째, 국제화는 개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싫든 좋든 국제 사회에서 생존 발전하려면, 다른 국가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개방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화는 곧 국내 체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 어느 신생 후발 국가에서 무조건 국제화 물결에 휩쓸려 모든 정책을 개방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손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한국이 후발 국가가 아니고 건실한 중진 공업국이라고 하더라도 개방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제도를 재확인하고 미비 영역을 과감히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 사회, 문화, 교육 목표체계의 재확인이라고 하겠다. 넷째, 국제화를 위한 제반 전략과 정책은 국제적 시각에 터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채택,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상황적 정책 결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적 맥락과 구조적 조건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제화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꾸어 말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교육개방도 사회문화적 국제화라는 시각에서 자국화교육을 전제로 한 한국의 교육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전제가 필요하다.

## 1. 자국화 교육과 국제화

국제화와 세계화의 시점에서 교육개방의 중요한 과제는 자국화교육이다. 국제교육하면 전통적인 관념이라 할 수 있는 외국과 외국문화에 대한 습득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에 앞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자국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자국화교육은 국제화에 대비한 주체적 정체감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한국화 교육(韓國化教育)'이라 할 수 있다. 자국화 교육을 통해 편협되지 않은 국제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국화 교육의 내용은 민족적 정체감, 민족문화의 이해, 민족적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타문화 이해 교육 등이 주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쇄국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단순한 포위피해의식(siege mentality)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학자인 알핀베이(Alpin Bay)가 지적하듯 '모방적 국제화'나 '패권적 국제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개방화와 함께 전통성과 민족적 고유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보편성을 인식하며 타문화와 관습, 그리고 타민족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내용이 자국화교육이다. 특히 무국경시대의 경쟁과 두뇌의 경쟁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의 국제교육의 주요한 과제는 국민생존과 관련된다. 따라서 자국화된 3인(3人), 즉 주체성있는 인간(人間), 자국화된 인력(人力), 세계시민적 인재(人材)의 배양이 주요한 과제

이다. 국제화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괴리현상이다. 지금껏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제화는 확대되어 왔지만 정신적 측면의 국제화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전통의 약화로 자아정체성이 상실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당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자국화 교육은 더욱 중요한 국제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확고한 자국화교육의 바탕 위에서만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탈피하여 자신감있는 참여적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문화적 국가주의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 다문화교육체제와 교육개방

21세기는 국제적 교류와 지역적 블록화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동일하다 하겠다. 사회문화적 예측과 변화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특정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문화적 동화'나 문화쇄국주의적인 문화적 편견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이중언어인 또는 제 2언어 사용과 함께 다양한 다른 문화를 익혀야 한다.

특히 서구편향적 사고나 서구의존적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다문화 교육의 강화를 통한 다원주의적 교육(pluralist education)이 요

청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화된 사회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예견되는 갈등을 배제할 수 있고, 국제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교육과 관련된 사회체제의 개방체제로의 전환과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개방체제화는 세계적 사고와 국제적 사고에 터한 국제화를 위한 개방체제를 의미한다. 문화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국가주의를 탈피해야하며 제도나 법제적인 개선과 함께 국민적 가치 또한 개방의식화될 때 개방체제가 확립되었다 할 수 있다.

## 3. 학교교육과 국제화

흔히 21세기는 세계학교교육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 즉 학교교육의 커리큘럼, 교수방법, 교육목표 등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내국적 차원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는 환경, 인구, 평화, 빈곤, 공중위생, 질병, 다문화적 사고, 세계적 고용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국제화에 대비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인 문화창조 및 전달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분배 및 선발의 기능, 진보 및 혁신의 기능 등에 있어서도 국제화된 시각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문화창조 및 전달의 기능에 있어서도 국제문화 수용과 자국문화 전통확립의 양대과제가 요구되며 사회화의 기능에 있어서도 국제인으로서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인력수급의 차원에서도 국제화된 시장개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제경쟁시대가 지나는 특성상 국가간 '인력경쟁시대'를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발전에 의한 '3-less college'라 할 수 있는 '책 없는 대

학’, ‘캠퍼스 없는 대학’, ‘교수 없는 대학’의 특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교육적 과제는 첫째,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내교육을 보호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로는 교육체제의 개방체제로의 전환과 자율성 신장 그리고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는 외국어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어교육의 경우 수학 연한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방법이 문제이고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성과 사회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흔히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어의 경우 ‘영어리 국민’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는 하되 ‘언어의 국가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앞서도 논의된 바대로 문화전통에 대한 교육과 한국인의 국적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아 정체성 확립교육이야말로 주체성 있는 국제인을 양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문화적 국제화는 교육개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 Ⅲ. 교육개방과 대학교육

UR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고 UR협정 최종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1948년 탄생이후 세계경제 무역질서를 지배해 온 GATT체제를 대체할 WTO가 출범하였다. 특히 117개국에 의해 서명된 UR협정 최종의정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개방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003년 3월 말 재제출된 교육개방 양허각서가 2004년 말까지 다자간 협상을 하게 되면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진다. 교육시장의 의미는 교육서비스 시장과 교육기자재 산업시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유치원, 초중등은 물론 공·사립대학교와 사설학원 등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개방 대상이다. 또한 교육기자재 산업시장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자재, 교재, 교육방송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매체와 교육중개를 포괄한다. 따라서 교육개방이 가져다 줄 교육의 파장은 내국적 파장과는 달리 세계를 교육의 시장으로 인식하는 ‘교육의 제2물결’이 될 전망이다.

#### 1. 21세기 대학경쟁력과 교육개방

21세기의 대학의 기능은 ‘도덕적 기업’, ‘전문적 기업’ 그리고 ‘세계적 기업’이라 생각된다. 특히 단일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이 아니라 전인류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고등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개방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교육개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세계적인 교육 접변(educational encounter)이며 또 다른 측면은 세계간 교육 이동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교육 선진국과 교육 개발도상국간의 교육적 차이 그리고 교육 전 매(educational monopoly)현상이다. 특히 고등교육개방은 한 민족의 지성인 집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더욱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의 세계는 물질 거래의 공존과 반목의 기존 관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교육과 문화 접변에 의한 ‘의식적

동화(意識的 同化)와 '문화적 고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에 관한 한 단순한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세계화된 경쟁이라는 점 때문에 대상에 있어서나 세계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내용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 경쟁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교육의 개념 또한 단순한 내국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세계의 교육 시장을 전제로 하는 고객의 개념과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개방이 '의식 개방'이고 '인간 자원 개방'이며 주체성 확립 여하에 따라서는 교육 예측화와 문화 종속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 부문의 대외 개방 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개방의 의미와 사례

고등교육 부문의 대외 개방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 개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제무역기구 출범과 더불어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의 개막이 도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화 전략도 필요하고 교육 개혁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분위기를 조성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 진학 문호의 확대와 다양화로 대학 입학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공식적인 통계인 87개국 162,420여 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연간 20억 달러(1조 5천억 원) 정도의 유학 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상당 규모의 유학 대체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측면도 있다.

#### • 고등교육개방의 영역

우리나라 고등교육개방과 관련해 볼 때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규는 외국인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기관을 학교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 법인을 투자 회수와 영리 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수 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교류 협력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에서의 독자적 교육 활동은 일체 제한하여 왔다. 근래에는 교육특구를 설정하여 외국의 우수 대학원 등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교육 부문 시장 개방은 주요 외국의 교육 부문 개방 양허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쌍무 협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대학 예컨대 미시건대학, 유타대학 등은 부분적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 등 몇 나라의 상당수 대학들도 우리 대학 시장의 개방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개방의 영역은 첫째,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 소재 방송, 통신 교육기관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국경간 공급의 개방', 둘째 내국인의 유학과 외국인의 유학 제한이 폐지되는 '소비자 이동의 개방', 셋째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되는 '상업적 주체의 개방', 넷째 외국인이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서비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력 이동의 개방'의 네 영역이다. 고등교육의 교육개방은 위에 지적한 네 영역 모두 관련

되며 특히 '상업적 주재의 개방'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보면 상업적 주재의 개방을 포함하여 제반 개방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대개 외국이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진출할 형태도 대개는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진출하는 형태, 국내의 교육 경영자와 합작 또는 계약에 의한 진출 형태,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교육 방법 등을 제공하여 로열티를 받게 되는 프랜차이즈 형태, 그리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직접 유학생을 선발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할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에 의한 '보이지 않는 교육(invisible education)' 형태의 파장은 예견 이상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진출 형태이다. 그리고 개방 영역에 있어서도 정규 학위 과정은 물론이고 비학위 과정과 통신교육 과정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개방은 한국의 대학교육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신설하고 분교를 설치하며 국내 대학과의 연합체제 또는 교외 학위 제도로 국내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교육개편과 교육전이가 불가피할 것이다.

#### • 외국의 대학 개방 사례 : 일본

일본은 1982년 미국의 템플대학이 동경에 대학원 수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40여 개교의 미국 대학 분교가 설립되었으나 진출 초기의 10:1 정도에 이르는 높은 지원율과는 달리 최근에는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폐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현재는 3개교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방 사례를 보면 법적 지위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인가하는 전수 학교 지위와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 단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진출 유형은 독자적 운영을 하되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를 볼 때 미국 대학들이 진출은 했으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 정부가 정규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인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 영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유지한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진출한 대학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대학인데다 비싼 등록금과 과대선전 등에 실망을 느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내의 대학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보수적인 일본 문화의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고등교육개방 정책을 쓴 일본 경우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개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사 받는 바도 크다 하겠다.

#### 2) 교육개방의 영향과 대학 교육

흔히 21세기는 '교육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 시대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다원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 관계는 이해가 상통하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집단협력체제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비록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UR에 의한 교육개방은 시기가 중요할 뿐 교육발전적 측면에 기여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부문 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문화적 다변화에 의한 교육 내용의 국제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개방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개방의 기능은 '의식 개방'의 기

능과 같고 자녀를 타인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과 비유될 정도로 민족과 국가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준비 없는 개방은 경계되어야 한다.

교육개방의 기능은 역기능과 순기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교육개방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쌀 개방과 농수산물 개방 등에 지나치게 민감해 있는 우리들의 정서로 본다면 어떠한 개방도 우려되는 바는 아니겠으나 쌀 개방 자체보다는 개방했을 때 쌀의 소비를 할 것인가의 수용 여부는 교육의 소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개방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 볼 수 있다.

교육개방은 그 기능 면에서 다음 몇 가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순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개 ① 선진국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② 교육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방법 등의 도입 과정에서 국내 교육기관들을 자극하여 질적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③ 외국 교육의 유입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④ 교육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것 못지않게 우리의 교육을 외국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⑤ 교육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교육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 교육 개혁이 지향하는 열린 교육사회의 이상에 부합할 뿐만 아니

라 지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문화 수용력을 키우고 사고와 삶의 무대를 세계화하는데 기여하는 등이 교육개방의 순기능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역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① 교육이 의식과 관련되어 있고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전수과정이라기 보다는 민족 구성원의 주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에 따른 민족적 정체성과 주체성의 혼돈 내지 상실의 문제이다. ② 교육개방에 따른 무차별 자유경쟁 체제는 교육의 질과 체제 면에서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잠식시키고 자생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 ③ 일부 선도 대학의 적극적인 개방에 따른 후발대학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나아가 교육 계층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④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로 인한 학문의 종속화 등의 부정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⑤ 물론 사회계층에 따른 외국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수준에 차이가 생겨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국 교육개방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교육개방을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따라 교육개방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문화와 함께 개방의 충격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개방의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교육개방의 역기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 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도 어학계열이나 첨단과학분야처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분야는 모르나 사회과학이나 예체능 분야 등의 경우는 예속화된 교육이 될 우려가 있고 교육 종속화



(educational dependency)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쇠국주의나 교육개방 그 자체를 봉쇄하는 일은 국가 발전에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흔히 문화 침략 국가와 문화적으로 침략 당하는 국가 간의 차이는 주체성의 확립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쟁위주의 학력주의 교육과 무국적 교육현상이 혼재하는 민족은 언제나 교육식민지적 현상을 탈피할 수 없었음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 점에서 교육개방은 한국의 대학교육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교육개방의 장단점을 검토해 볼 때 명암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장래를 바라보는 준비가 필요하며 교육개방화의 속도와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개방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대학구성원들의 개방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지도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방에 따른 대학교육 개혁은 우선 대학체제와 대학체제 면에서 구조조정과 전략적 체계구축 등 대폭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 2. 교육개방과 대학의 대처방안

첫째,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높은 교육열이 지속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용이한 성장과 안일한 경영으로도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경영에 있어서 국제경쟁적 경영체제로 돌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적 경영체제는 곧 대학경영의 효율화를 의미하며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 경영의 전문화와 행정권한 분산에 의한 효율화,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화, 그리고 입학과 졸업의 자율화 등의 방법 등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흔히 신민족국가사회로 전환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신민족국가사회는 대학의 역할이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동질민족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에 터한 경영과 함께 자국화 교육경영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존대학의 사고체제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사고와 전문화된 사고로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의 선발과 분배의 기능에 대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선발과정과 분배의 역할을 유연성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정원 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계열별 대학별로 정원을 유연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편입학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평생교육체제의 확충을 통해 재수생과 재교육대상자들을 대폭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학의 학사운영체제는 대학생들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소비자학사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교수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커리큘럼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는 있을 수 없고 우수 외국대학들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대결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현재의 고정된 커리큘럼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수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커리큘럼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개방이 될 경우 통신매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

대학체제와 대학체계 면에서 대폭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학생 수의 적정선 유지, 불필요한 부서의 통폐합, 외국어교육의 강화,  
그리고 국제관련 전문인력의 적극양성 등의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육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개방 면역성' 과  
'개방 경쟁력' 을 배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여 통신매체, 문제중심 방법(problem-based learning) 그리고 자기 주도적학습(self-paced learning)방법, 다중 매체방법(multi-media package)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어 교육의 활성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들은 40개국이 활용하는 영어, 27개국이 활용하는 불란서어, 21개국의 아랍어 그리고 20개국의 스페인어 등이다. 특히 Altbach교수가 서슴치 않고 지적하고 있듯 '영어의 제국주의(Imperialism of English Language)라고 표현이 갖는 의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언어 다문화 다인종의 체제로 다양화 시켜야 한다.

넷째, 대학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설비나 교육보조자료, 그리고 인간자원의 측면에서는 단일 대학독단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학풀(pool)제' 활용의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재정의 빈곤을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개방이 가져올 충격은 배제할 길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대학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영역별 협력체제에 의

한 자원풀제, 교수풀제, 실험실습공동센터 등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개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구성원들이 개방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방의식은 단순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교육개방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방을 대비할 때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다. 개방은 하되 주체성 있는 개방을 하여야 하고 개방을 준비하되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UR에 의한 개방과 관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교수들의 전공이기주의, 세속화된 전문주의, 그리고 무국적의 특성을 배제하지 못한 이론추구 등이며 교육개방은 단순한 학술교류나 학위과정의 아니라 국민의 사회화와 엘리트 집단의 '국제사회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체제의 개방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은 교육개방을 전달할 부서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현재의 국제협력관계를 진단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장기대책

은 교육개방시의 단일대학의 위상과 각국간의 협력프로그램 그리고 협력 유형 및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협력처, 국제 학생교수 상담실, 외국인 기숙사, 외국인 어학당, 한국어 훈련센터(KLSL)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대학교육의 개혁 못지 않게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의 UR교육개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과제로서는 산업구조를 조정함과 아울러 교육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교육구조의 조정은 각 단계별 교육간의 수평적 통합과 시기별, 위계별 수직적 통합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방에 대비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강화를 통해 제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강화의 측면은 공정거래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UR개방에 따른 협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개혁을 위한 UR대비 전문가 pool제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교육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교육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별 교육산업 현황분석 및 개방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 확대에 대비한 교육개방관련 제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개방은 대학만의 일이 아니므로 전 국가적인 관심과 사회 구성원들의 개방의식, 국제화 의식 강구도 필요하다.

여덟째, 대학과제는 앞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적극적 기회창출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학체제를 개방체제화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유연성 있게 하여야 하며 대학구성원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껏 지속되어 온 국제적 종속적 태두리를 탈피하여 국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배타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개방플레'로 전환하여 상호 격려하고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후발대학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고 영역별 연대나 지역별 개방연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소비자의 입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도 개방 수혜자로서의 소비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적이고 맹신적 외국 선호와 비합리적 소비 형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근래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기리기아빠' 증후군이나 외국에 자녀와 함께 일시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지칭하는 '기독녀' 현상도 이제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 특히 사회전체가 교육개방을 내실화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소비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나 대학협의체 차원에서 개방에 따른 교육소비자 감시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구화된 교육'이 반드시 '근대화된 교육'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 IV. 결론

교육개방의 장단점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명암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준비와 함께 교육개방화의 속도와 범위에 관한 기준 그리고 '개방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개방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대학체제와 대학체계 면에

서 대폭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학생 수의 적정선 유지, 불필요한 부서의 통폐합, 외국어교육의 강화, 그리고 국제관련 전문인력의 적극양성 등의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육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개방 면역성'과 '개방 경쟁력'을 배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21세기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개방의 몇 가지 준비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한국적 개방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 점진적 개방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 문화수용과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 문화수용은 교육개방 과정에서 엄격히 엄선된 교육내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습득되어야 하고 적극적 외국 학생 유치라든지 국내 교육기관의 외국진출 등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적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개방에 따른 선별적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확대라기보다 UR치중 협상 중 각 국의 교육부문 개방 양허에 대응하는 선별적 확산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의사결정 측면에서 대학의 수평적 수직적 다양화가 필요하다. 수평적으로는 커리큘럼, 제도 등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수직적 다양화는 체제적 측면에서 중앙집권화보다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통제와 더불어 문화자율성(cultural autonomy)을 확립하는 작업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절대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개방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체제와 체계 면에서 한국적 특성과 함께 개방

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곱째, 대학은 적극적인 개방관(開放觀)을 지녀야 한다. 적극적 개방관은 개방형 교육체제, 개방형 인적훈련, 개방형 학사관리, 개방형 교육내용, 개방형 경영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뜻한다.

여덟째, 대학은 커리큘럼의 내국화와 외국화의 과제가 있다. 특히 언어의 다양화, 커리큘럼의 다양화, 어학훈련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홉째, 대학은 국내외의 우수 교수와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고객유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간의 교류협정, 국제기구 간의 협력체계 확립 그리고 외국대학 간의 학생협정 등이 필요하다.

열번째, 교육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교육적 중앙집권화의 필요성은 교육개방의 장단기 선별정책을 위해 필요하며 분권화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응전략수립과 개방연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한번째, 이외에도 교육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의 지도력, 계획수립능력, 커리큘럼의 국제화, 캠퍼스의 국제형으로서의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교육은 문화적 외교(cultural diplomacy)이다. 그러나 준비없는 문화적 외교는 교육 식민지화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흔히 교육개방에 따른 진출이 예상되는 형태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 대학의 단기 교육과정의 설치 운영(예컨대 언어과정, 무역실무과정 등), 통신매체 활용을 통한 원격 교육형태(장단기 학위과정인

교외학위제도 등), 커리큘럼과 학사 운영만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등 어느 것이든 완벽한 대비를 전제로 한 적극적 개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은

첫째, 국내 진출의 규모나 질적 측면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들의 기존 설치학과와 분야를 고려하여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분교 설치의 경우도 국내 대학과 협력프로그램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과정이나 통신과정 등 교외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질 관리와 자격증 통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 개방 방안과 대책도 필요하다.

넷째, 강의에 사용한 언어의 경우도 진출 국가의 외국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이 아니라 영역과 분야에 따라서는 한국어와 공동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방을 통해 전략적 특성화를 유도하거나 국내 대학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적 개방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교육개방은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맹목적인 교육시장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얼을 상실케 하는 '의식개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민족적 주체성'과 '국제경쟁력'의 배양 여부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고 '한국인'은 교육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21세기 한국인'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인'은 국제화된 주체성 있는 한국인을 뜻하며 창조성, 주체성, 국제성, 전문

성을 지닌 민족을 뜻한다. 이 점에서 대학교육 개방과 관련한 전략은,

- ① 교육 쇄국주의 / 교육 식민지주의와 관련된 전략
- ② 소극적 개방 / 적극적 개방의 선택과 관련된 전략
- ③ 전략적 개방 /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적 전략
- ④ 자국화 / 국제화 / 세계화를 조화시키는 단계적 전략
- ⑤ 교육수출 / 교육수입의 관점에서 보는 교육무역(educational trade)의 전략
- ⑥ 대학의 법제도적 재정비 정책을 고려한 적극적 교육개방 전략
- ⑦ 국가적 이익과 인적관리차원에서 보는 교육개방 투자정책과 관련된 전략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개방에 있어 대학이 안고 있는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21세기는 개방화의 세기이지만 동시에 '자국화의 세기 (century of nationalization)'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다.

## 참고 문헌

- 이현청(1995).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 정책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정책에 관한 세미나 자료, pp. 7-24
- 이현청(1996).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전략. 서울: 한양대 출판원, pp. 78-80
- 이현청(1997). 고등교육개방과 대학의 과제. 서울: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 세미나 자료
- 이현청(1997). *교육시장개방과 대학의 대응전략*. 고등교육연수원 : 홍보담당 연구자료.
- 이현청(2001).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서울: 민음사.
- 이현청(2001). *미국교육의 반성*. 서울: 원미사
- Albach, Philip G.(2000). *The Changing Academic Workplace, Comparative Perspectives*. Boston College Center for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pp. 1-24.
- Lee Hyun Chong(1995). *New Direction for University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UNESCO Conference, (China : Xiaman University)
- Lee, Hyun Chong(1995). *The Role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Towards a Competitive and Cooperative, Asia - Pacific Age*. KyungJu: Korea International Education Council,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 Lee, Hyun chong(1996). *UMAP Country Report*. UMAP reference group meeting, Auckland, New Zealand
- Lee, Hyun Chong(1997). *New University strategy in the Age of Student Consumerism*. UNESCO Higher Education Policy seminar. Tokyo: Japan
- Lee, Hyun Chong (2000). *Virtual University? Educational Enviornments of the Future*. London: Portland Press
- Lee Hyun Chong(2004), *The shift of University Paradigm and Reform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Hiroshima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Japan, 2004. 2. 4-6.
- Thuorow, C. Lester(1993) *Head to Head :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arner Books

---

#### 이현청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및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교수, 남일리노이 대학과 시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UMAP(아·태 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세계대학협의회(IAU)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사회학』,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 전략』, 『학습하는 사회』,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외 다수가 있다.